

2024년 4월 14일. 14 April 2024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0 But in fact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21 For as by a man came death, by a man has come also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22 For as in Adam all die, so also in Christ shall all be made alive.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5:20-22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을 지난 두 번째 주일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부활소망을 묵상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날마다 부활소망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이미 얻은 소망으로써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옵소서. 핍박이 심할수록 더욱 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가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로써 천지를 지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향한 소망

Hope in God

사도행전 Acts 24:1-17

1. 다섯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And after five days the high priest Ananias came down with some elders and a spokesman, one Tertullus. They laid before the governor their case against Paul.

2.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And when he had been summoned, Tertullus began to accuse him, saying:

3.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Since through you we enjoy much peace, and since by your foresight, most excellent Felix, reforms are being made for this nation, in every way and everywhere we accept this with all gratitude.

4.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But, to detain you no further, I beg you in your kindness to hear us briefly.

5.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For we have found this man a plague, one who stirs up riots among all the Jews throughout the world and is a ringleader of the sect of the Nazarenes.

6.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6하반-8상반 없음).
He even tried to profane the temple, but we seized him.

7.

8.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By examining him yourself you will be able to find out from him about everything of which we accuse him.”

9.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The Jews also joined in the charge, affirming that all these things were so.

10.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And when the governor had nodded to him to speak, Paul replied:
“Knowing that for many years you have been a judge over this nation, I cheerfully make my defense.

11.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You can verify that it is not more than twelve days since I went up to worship in Jerusalem,

12.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and they did not find me disputing with anyone or stirring up a crowd, either in the temple or in the synagogues or in the city.

13.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Neither can they prove to you what they now bring up against me.

14.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But this I confess to you, that according to the Way, which they call a sect, I worship the God of our fathers, believing everything laid down by the Law and written in the Prophets,

15.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having a hope in God, which these men themselves accept, that there will be a resurrection of both the just and the unjust.

16.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So I always take pains to have a clear conscience toward both God and man.

17.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Now after several years I came to bring alms to my nation and to present offerings.

18.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While I was doing this, they found me purified in the temple, without any crowd or tumult. But some Jews from Asia—

19.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they ought to be here before you and to make an accusation, should they have anything against me.

20.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Or else let these men themselves say what wrongdoing they found when I stood before the council,

21.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other than this one thing that I cried out while standing among them: ‘It is with respect to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at I am on trial before you this day.’”

22.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리라!” 하고,
But Felix, having a rather accurate knowledge of the Way, put them off, saying, “When Lysias the tribune comes down, I will decide your case.”

23.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Then he gave orders to the centurion that he should be kept in custody but have some liberty, and that none of his friends should be prevented from attending to his needs.

24.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After some days Felix came with his wife Drusilla, who was Jewish, and he sent for Paul and heard him speak about faith in Christ Jesus.

25.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And as he reasoned about righteousness and self-control and the coming judgment, Felix was alarmed and said, “Go away for the present. When I get an opportunity I will summon you.”

26.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At the same time he hoped that money would be given him by Paul. So he sent for him often and conversed with him.

27.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When two years had elapsed, Felix was succeeded by Porcius Festus. And desiring to do the Jews a favor, Felix left Paul in prison.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구름 같습니다. 바람과 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공허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그것이 현실(reality)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것이 오늘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Caesarea)로 이동한 바울은 이제 로마 권력자 앞에 섰습니다.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 지역 로마(Roman Palestine)의 수도(provincial capital)입니다.

바울은 벨릭스(Felix) 총독(Procurator) 앞에서 변명합니다.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 실시하는 세 번째 변명입니다. 현장은 가이사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유일한 경우로, 지금 바울은 정식으로 로마법에 따라 정식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고 변호사 더둘로(Tertullus)의 고소(accuse) 스피치와 피고 바울의 변명(defense) 스피치가 공존합니다.

- 1. 정황소개
- 2-8. 원고 변호사 더둘로의 스피치
- 9. 유대인들 동의
- 10-21. 피고 바울의 변명.
- 22-27. 총독의 지시

가이사랴에서 실시된 이 세 번째 재판을 통하여, 바울과 유대인의 신학적 차이가 무엇인지 오히려 로마의 법의 빛에 비추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울은 그의 변명 기회를 사용하여 자기변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부활이 있다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위기에 닥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도울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1. 다섯 해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And after five days the high priest Ananias came down with some elders and a spokesman, one Tertullus. They laid before the governor their case against Paul.

다섯 해가 지났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Tertullus)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더둘로. 그는 유대인입니까, 로마인입니까? 대부분 학자들은 그를 "로마인"으로 인정합니다. 그가 "우리"라고 고소인들을 대리하지만, 그것은 법적 용어일 뿐입니다.

그가 총독 앞에 섰습니다.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2.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And when he had been summoned, Tertullus began to accuse him, saying:

원고 변호사 더들로의 고발장입니다. 2-8절에 이릅니다.

3.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Since through you we enjoy much peace, and since by your foresight, most excellent
Felix, reforms are being made for this nation, in every way and everywhere we accept
this with all gratitude.

유대인을 위하여 변호사로서 유대인의 입장을 대변하지만, 로마인으로서 로마와 그
통치자들에 대한 "자화자찬" 성격이 강한 발언입니다.

다른 한편, 바울을 로마 법정에 세운 유대인들의 알팍한 편의주의 단면이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일제 때 교회를 박해하던 조선인들이 총독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모양이랄지요.

이렇게 벨릭스를 면전에서 찬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바울을 고소하는 일에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통치자요 재판장인 벨릭스를 문제아 바울과 대비시키는, 당시 로마의
법정 수사법(Roman rhetoric) 일종이었습시다.

벨릭스는 지혜로운 정치인이므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악자 바울을 바르게 분간하여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줄 안다는, 대단히 교묘한 발언입니다.

4.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But, to detain you no further, I beg you in your kindness to hear us briefly.

수사법의 최대 강점은 "간략함"(brevity)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장광설은 벌써 틀렸습시다.

로마인 특유의 수사법입니다. 간략하게 핵심을 드러내는. 그리고 사건 경위를 들어야 하는
재판장의 수고를 덜어주려 한다는 간교함입니다.

자기의 간략함조차 상대에게 괴로움이 될까 염려하는, 간교한 언설입니다. 순간에
휘몰아치는 돌풍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5.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For we have found this man a plague, one who stirs up riots among all the Jews
throughout the world and is a ringleader of the sect of the Nazarenes.

간단하게 바울을 정리합니다. 1. 전염병, 2. 유대인 폭동자, 3.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특히
두 번째 경우는 로마의 "치안유지법"을 주목한 것입니다.

천하에. 로마 제국의 범위입니다. 팍스 로마나(Pax Romana). 로마의 통치의 결국은 제국 내
평화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폭동 유발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라는 자가 벨릭스 총독의 치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위자라는 증거입니다.

“천하”를 언급하는 이 자리에서 굳이 로마 황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 재판 현장의 최고 책임자 벨릭스를 극찬하는 수사법입니다.

세 번째로 제시한 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는,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형에 처해진 예수님을 연결한 수사학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제2의 예수”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그 로마법이 오늘 여기서 적용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6.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6하반-8상반 없음).
He even tried to profane the temple, but we seized him.

거기다 “성전법”을 위반한 전력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앞선 #2처럼 로마의 ‘치안유지법’에도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소수민족에게 “성전”과 그 “제사”를 허락했지만, 그로써 어떤 소요사태가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배로써 유대인의 불평이 잠재워지고, 어떤 정치적인 소요 동기가 오히려 소멸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7.

어떤 내용이 여기서 생략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구체적인 로마법을 위반한 사항을 열거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 정황을 살피면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서 범법행위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다니엘(Daniel)의 대적자들이 종교법 아니고는 그를 결코 음해할 소지를 찾아내지 못했던 그대로!

8.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By examining him yourself you will be able to find out from him about everything of which we accuse him.”

더둘로는 더 이상 구체적인 범법내용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 바톤을 총독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더둘로가 말한 모든 것은 1. 바울은 전염병, 2. 소란자, 3. 이단자, 4. 성전목독자 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신학적”입니다. 전혀 “로마 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사도행전에서 진행된 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고소 고발한 내용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9.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The Jews also joined in the charge, affirming that all these things were so.

참가하여(synepitithemi). 이 단어는 “군사적 협동태세”를 함축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들의 변호인을 중심으로 벌떼처럼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유대인들도 더둘로의 진술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돌려 말하면, 더둘로는 정확히 유대인들의 고소내용을 대변한 것입니다.

다만, 바울의 경우를 로마 총독 앞에서 진술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충돌하는데, 당사자의 대결을 넘어서서, 로마 총독이 주관하는 법정에서, 로마의 법에

비추어 그 두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자리가 세속과 정치의 도시 “가이사랴”입니다.

10.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And when the governor had nodded to him to speak, Paul replied: “Knowing that for many years you have been a judge over this nation, I cheerfully make my defense.

이제 총독은 바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더들로의 변병 패턴을 따라, 총독 벨릭스가 이 민족의 재판장인 것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벨릭스 앞에서 변명하는 일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1.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You can verify that it is not more than twelve days since I went up to worship in Jerusalem,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바울과 벨릭스 사이에는 숨긴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래 겨우 12일 지났습니다. 그 기간은 짧습니다. 어떤 모의를 하거나 하기에는.

12.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and they did not find me disputing with anyone or stirring up a crowd, either in the temple or in the synagogues or in the city.

바울은 사회를 소란케 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범법행위가 없습니다. 무죄합니다.

13.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Neither can they prove to you what they now bring up against me.

바울은 더들로를 통해 제출한 “고소장”이 로마법에 위반한 내용을 품지 못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범법자라는 유대인들의 고소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14.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But this I confess to you, that according to the Way, which they call a sect, I worship the God of our fathers, believing everything laid down by the Law and written in the Prophets,

이제 바울은 “고백”의 차원으로 재판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그가 이제 상대하며 내세우는 것은 로마법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입니다.

이런 극적인 전환. 이것은 진정한 믿음과 용기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의 정황과 그들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투의 최고 전략은 적을 유인하여 싸움의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략 고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국면전환의 결단과 지혜가 돋보입니다.

이런 극적 전환은 온 세상을 대하여 “나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원수들을 상대하는 자에게는 “위장술” 작전이 커다란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자신을 오히려 드러냅니다. 위험한 태도지만, 이게 도리어 안전을 보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O Lord, God of Abraham, Isaac, and Israel, let it be known this day that you are God in Israel, and that I am your servant, and that I have done all these things at your word. 37 Answer me, O Lord, answer me, that this people may know that you, O Lord, are God, and that you have turned their hearts back.”
열왕기상 1 Kings 18:36a-37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기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입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입니다.

15.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having a hope in God, which these men themselves accept, that there will be a resurrection of both the just and the unjust.

바울은 그들 유대인들이 가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빌어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공유하는 하나님, 그분께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두 종교의 공통점이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될 때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완전하게 갈라놓는 분기점이 됩니다.

16.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So I always take pains to have a clear conscience toward both God and man.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입니다.

17.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Now after several years I came to bring alms to my nation and to present offerings.

바울은 구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오랜만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구제와 예배였습니다. 소동과 소요가 아니라.

18.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While I was doing this, they found me purified in the temple, without any crowd or tumult. But some Jews from Asia—

바울은 유대인의 결례를 지켰습니다. 성전에서 어떤 소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하던.

19.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they ought to be here before you and to make an accusation, should they have anything against me.

그런데 그들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20.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Or else let these men themselves say what wrongdoing they found when I stood before the council,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에 대하여 구체적인 고소를 하라고.

21.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other than this one thing that I cried out while standing among them: ‘It is with respect to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at I am on trial before you this day.’”

오직! 바울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 공의회에서 선포했던 그 내용을 반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를 분간하는 그 발언입니다.

이 발언을 반복함으로써, 오늘 바울은 기독교가 유대교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분깃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0-21절 정리: 바울의 변명. 바울은 유대인들은 물론 고소 변호사보다 “지혜롭고” “순전”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Behold, I am sending you out as sheep in the midst of wolves, so be wise as serpents and innocent as doves.

마태복음 Matthew 10:16

누가 감히 그를 쇠사슬에 묶고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그의 지혜와 순전함은 “성령충만”에서 온 것입니다.

22.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라!” 하고,

But Felix, having a rather accurate knowledge of the Way, put them off, saying, “When

Lysias the tribune comes down, I will decide your case.”

벨릭스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어떤 상세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인데,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이 결코 지니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방인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이방인의 열린 마음을 놀랍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23.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Then he gave orders to the centurion that he should be kept in custody but have some liberty, and that none of his friends should be prevented from attending to his needs.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서 선처했습니다. 바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에게 자유를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돕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24.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After some days Felix came with his wife Drusilla, who was Jewish, and he sent for Paul and heard him speak about faith in Christ Jesus.

그뿐 아닙니다. 벨릭스는 그의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방인이 오히려 구원에 가깝습니다.

유대인 여자 드루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아그립바 1세의 막내딸입니다(행 12:1-4, 19-23). 아그립바 왕 2세의 여동생입니다(행 25:13).

드루실라가 유대인으로서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는 정황으로 파악할 뿐입니다. 적어도 남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25.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And as he reasoned about righteousness and self-control and the coming judgment, Felix was alarmed and said, “Go away for the present. When I get an opportunity I will summon you.”

바울은 벨릭스와 그의 유대인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 의, 2. 절제, 3. 장차오는 심판.

벨릭스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다음 기회를 청했습니다.

26.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At the same time he hoped that money would be given him by Paul. So he sent for him often and conversed with him.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벨릭스는 세속에 빠진 자였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있으나, 물질욕심도 작지 않았습니다. 돈을 바랐습니다.

유랑선교사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각처의 헌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와 동행한 여러 형제들이 재무를 담당했지요. 그런데 야고보도 결례를 위한 비용지불을 요청했고, 천부장도 돈 주고 시민권 산 이야기를 했으니, 바울에게 재물의 냄새가 난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돈으로 선교 한 경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27.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When two years had elapsed, Felix was succeeded by Porcius Festus. And desiring to do the Jews a favor, Felix left Paul in prison.

2년 임기를 마치고 벨릭스가 총독 자리에서 이임합니다. 보르기오 베스도(Porcus Festus)가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벨릭스는 그때까지 바울을 구류해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핍박합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요, 그도 유대인의 중심세력 중 하나인 바리새인 아닙니까?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그들과 사뭇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써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온 세상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울이 가진 것은 "부활소망"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소망이 삶의 모든 동력이 되는 줄 믿고 압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며,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적들입니다. 그러나 더 크고 놀라운 무리가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파송하시는 하늘의 군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한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16 He said, "Do not be afraid, for those who are with us are more than those who are with them." 17 Then Elisha prayed and said, "O Lord, please open his eyes that he may see." So the Lord opened the eyes of the young man, and he saw, and behold, the mountain was full of horses and chariots of fire all

around Elisha
열왕기하 2 Kings 6:16-17

기도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중에 어떤 자리에 이끌려
가더라도, 거기서 복음전파의 기회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종인 것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증거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직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활 복음의 소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